

청자 빚고 불멍 때리고...색다른 체험에 빠져볼까

22일~다음달 3일 강진청자축제...가족 참여 프로그램 늘려 청자 반값판매·봄나물 캐기 이벤트...하멜매주 등 먹거리 풍성

제53회 강진 청자축제가 22일부터 3월 3일까지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 요지 일원에서 열린다. 겨울의 끝과 봄의 시작을 알리는 축제이자, 전남에서 첫 번째로 열리는 축제다.

강진 청자축제는 천년을 이어온 고려청자의 아름다움을 조명하고, 도자기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대표적인 문화축제다. 3년 전부터는 겨울인 2월에 개최해 호응을 얻었다.

강진은 고려 시대 청자의 본고장으로, 빼어난 비색과 정교한 문양으로 유명한 고려청자가 제작된 중심지였다. 강진 고려청자 요지는 국보와 보물이 다수 출토된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당시의 도자기 제작 기술과 예술적 감각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올해 축제는 청자를 테마로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게 특징이다. 청

자골 불멍 캠프, 화목가마 장작 패기, 화목 소원 태우기, 소망등 달기 등 불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청자 축제를 대표하는 체험 행사다.

물레 성형 체험, 청자파편 모자이크 만들기, 청자 코일링, 청자 탁본 뜨기 등은 청자축제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처음으로 꽃삽으로 흙 속에 묻힌 청자를 찾는 발굴 체험과 아이들이 흙을 밟으면서 감성을 키우는 태도 밟기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어린이 키즈존과 플레이 셀라돈 키즈랜드도 색다른 즐거움을 준다. 주 무대 옆에 마련된 어린이 키즈존에는 핑크퐁 등 인기 캐릭터 에어 조형물과 여러 종류의 에어바운스가 설치돼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다. 플레이 셀라돈 키즈랜드는 트램펄린, 미끄럼틀과 같은 놀이기구 외에도 디지털 매핑, 가상현실(VR) 체험존 등 다양한 실감 콘텐츠로 채워

진다.

고려청자 반값 판매, 유퀴즈 청자투어, 봄맞이를 위한 봄나물 캐기 등 이벤트를 비롯해 푸드코트, 직거래장터, 하멜매주 시음 등 축제장 곳곳에서 다양한 먹거리들을 맛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고려청자의 우수성과 역사적 의미를 알리기 위한 전시가 마련된다. 고려청자의 발전 과정과 다양한 유물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고려청자 특별전'이 열리며, 현대 도예가들의 작품과 전통 기법을 접목한 다양한 창작 도자기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강진 도예명장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고려청자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 청자축제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천 년을 이어온 고려청자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직접 경험할 소중한 기회"라며 "이번 축제를 통해 강진이 고려청자의 중심지로서 더욱 널리 알려지고, 청자의 전통이 현대적으로 계승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지난해 열린 청자축제 현장에서 어린이들이 물레 성형 체험을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결혼이주여성 돕는 화순군 다문화팀 사회통합 선도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

화순군이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다문화팀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사회통합에 앞장서고 있다.

화순군은 2023년 1월 전국 최초로 다문화팀을 신설한 이후 다양한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필기체 공무원으로 채용해 다문화가족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고, 이 같은 선도 행정은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로 인식되면서 호평을 받았다.

2024년에는 ▲조기입국자 멘토링 사업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소수국가 이민 여성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확대 ▲지역 교육기관과 연계해 통한 자녀 교육 서비스 제공 등 다문화 가정의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올해도 기존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결혼이주여성이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문



제1기 화순 다문화어머학교 프로그램.

화 어머학교' 프로그램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조미화 화순군 인구정책과장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함평군 '찾아가는 민원창구' 경로당 무인발급기 사용 교육

함평군이 현장에서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해 주는 '찾아가는 민원창구'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함평군은 지난 18일 함평을 월봉경로당에서 찾아가는 민원창구를 운영했다. <사진> '찾아가는 민원창구'는 단순 상담으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고 그 외 민원은 국민신문고에 등록해 담당 부서에서 민원을 처리하도록 안내하며 그 결과를 전화나 서신 등으로 통보하고 있다.

군은 언제나 간편히 민원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정부24 시스템 이용 교육과 현재 각 읍·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교육을 실시해 전자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도움을 얻었다.

민원창구를 이용한 한 주민은 "무인민원발급기와 정부24를 이용할 줄 몰라 곤란한 상황이 종종 있었다"라며 "이용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앞으로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민원을 단순 처리 대상이 아닌 주민과의 소통이라는 인식 전환을 통해 주민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나주공고 '에너지 신산업 특성화고' 선정 힘 모은다

기관·대학과 컨소시엄 구성 협약

나주공업고등학교가 지역 산업수요 맞춤형 전문 인재 양성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선정에 힘을 모으고 있다.

나주공고는 교육부가 오는 2027년 전국 35개 교를 선정하는 '협약형 특성화고' 신규 지정 공모 참여를 위해 최근 지역사회 기관·대학과 컨소시엄 구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나주의 주력산업인 에너지 신산업 분야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해 지난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나주 에너지밸리 수도권 투자

유치로드쇼' 행사장에서 이뤄졌다.

협약식엔 신정훈 국회의원, 전남도교육청, 나주시, 국립목포대, 동신대, 한국에너지공과대,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재)전남테크노파크, 전남에너지산업협회 등이 함께했다.

이날 본격 출범한 컨소시엄은 에너지밸리 인재 양성을 위해 나주공고의 에너지 신산업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에 온 힘을 모으기로 했다.

2024년부터 교육부 주관으로 추진 중인 지역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산업의 변화와 발전에 발맞춘 지역인재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지자체·교육청·특성화고·산업체·대학·관계기관 등이 협약을 맺고 해당 지역에 가장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나주공고의 컨소시엄 구성은 특성화고 선정에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되면 교육부가 3~5년간 35억~45억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어서 산업현장 전문 인재 양성 교육기관으로 발전하게 된다.

전남도교육청도 지난해부터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 참여 희망 학교에 컨설팅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인 나주시도 한국전력 분사의 나주혁신도시 이전 이후 지역 대표 산업으로 발전 중인 에너지 신산업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 선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시·시민단체 "금성산 신무기 배치 반대"

정상부 상시 개방 협약 이행 촉구

나주시와 시민단체가 나주의 진산(鎭山)인 금성산을 영구적으로 군사기지화 하려는 움직임에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금성산은 지난 1966년 국가 보안시설인 공군 방공포대 주둔 이후 매년 1월1일 새해 해맞이 행사를 제외하고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돼 왔다.

지난해 4월 나주시가 공군 제1미사일방어단과 '금성산 정상부 상시 개방 협약' 체결을 통해 56년 만에 산 정상부가 시민들 품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최근 최신 방공 무기체계 배치설이 퍼지면서 '정상부 상시 개방 협약'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이 같은 우려는 최근 국방부가 전남도에 금성산 방공포대 신무기 체계 전력화를 위한 도유지 4필지 매입요청과 함께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된 도유지에 대해 2030년까지 연장 허가를 요청해서다.

실제 국방부는 '신무기 체계 전력화'를 골자로 매입을 요청한 부지에 작전시설물 신축, 기존 시설물 리모델링, 부대 외곽 경계 울타리 개선 공사 추진 등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나주 시민단체들은 "국방부의 부지 사용 허가 갱신·매입에 대해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며 "신무기 체계 전력화를 빌미로 금성산을 영구히 군사기지화 하려는 계획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병태 나주시장도 나주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윤 시장은 "금성산 신무기 체계 구축 반대 의견과 관련해서 시와 시민단체가 별개의 입장이거나 역할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지난해 57년 만의 금성산 정상부 상시 개방 결정에 이어 시민의 안전과 나주의 소중한 역사 문화, 생태자원 수호를 위해 시민단체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대응해 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성군,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정상 운영

배출량 따른 수수료 부과 두 달간 시범운영 효능 확인

장성군이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를 정상 운영한다.

장성군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양만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기기다.

이용자가 전용카드를 종량기에 인식시키고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배출량을 전자저울로 측정해 자동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언제든 필요한 양만큼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수 있어 편의성이 높고 위생적이다. 음식물쓰레기 전용 비닐을 사용하지 않아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장성군은 앞선 12월부터 1월까지 두 달에 걸쳐 장성월드클래스 1·2차 아파트 두 곳에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4대를 시범 설치해 효용성 등을 확인했다. 이달부터 요금 부과 등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

장성군은 주민 선호도와 요청 등을 고려해 점차적으로 종량기 설치 지역을 늘려갈 계획이다.



장성군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장성군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해충 발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 주민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담양군, 인구 감소 대응 전략 269억원 투자

대응위원회 심의회 사업 의결

담양군이 올해 인구 감소 대응전략 추진에 260여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7일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 심의회를 열고 269억원 규모의 인구 감소 대응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담양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지난해 기준 35.6%로 2014년 이미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20% 이상)로 진입한 상태다.

담양군은 '모두가 행복한 녹색 명품도시, 담양'을 비전으로 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에 생활인구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핵심인재 양성, 지역공동체 조성 등 4대 전략목표, 15개 사업을 담았다.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행계획으로 확정된 11개

계속·신규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269억원(기금 77억, 국비 13억11000만, 지방비 24억2000만, 민자 15억5000만)이다. 주요 사업은 ▲지역활력타운 조성(45억4100만원) ▲담양삼만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170억원) ▲공공임대주택(22억원) ▲스마트팜 인프라 구축(10억원) ▲창업형 영농시설 지원(12억5000만원)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기술교육(3000만원) ▲재배습기회 제공(3억2000만원) ▲빈집리모델링을 통한 체류 지원(2억5000만원) 등이다.

정광선 담양군수 권한대행은 "인구 감소는 담양의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한 사업 발굴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전략으로 모두가 행복한 녹색 명품 도시 담양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